

역사를 읽는 80년대식 문법과 여성역사의 모순적 공존

- 이남희 80년대 소설의 여성의식

송인화*

차례

1. 시대의 과제와 변혁의 욕망
2. 계급의식의 각성과 노동자/여성 주체의 새로움
3. 비극으로 말하는 여성 역사의 진실, 포섭되지 않은 잉여
4. 새로운 변혁을 위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1980년대 이남희 소설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살펴보았다. 1985년 갑신정변을 다룬 역사소설 『저 석양빛』을 통해 등단한 이남희는 역사와 변혁이라는 80년대 의제를 민중민족주의적 시각에서 꾸준히 추구한다. 노동자 계급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여 계급 모순의 해결을 통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무자각한 인물이 폭력적 억압의 실체를 깨닫고 연대와 투쟁을 통해 그것과 싸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장소설의 서사를 통해 계급 정체성을 확보한 노동자 여성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탐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급 정체성을 자각한 여성 노동자들이 패배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식에서 벗어나 자기 목소리와 행동력을 갖춘 저항적 주체로 서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중성적 노동자의 계급 문제로 봉합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여성의 문제를 계급 정체성으로 환원시켜 계급 해방이 곧 여성 해방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노동자’의 문제로 수렴되지 않는 ‘여성’의 문제와 모순이 서사의 논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리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다.

작품의 의도에 통합되지 못한 여성 문제는 그러나 노동자 여성의 비극적 역사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되면서 계급투쟁을 유일한 혹은 우선적 문제로 설정하는 작품의 논리에 균열을 일으킨다. 여성이 노동자로 편입되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담한 고통과 결핍이 제시되면서 계급 모순으로 환원되지 않은 여성의 억압이 의도치 않게 드러난다. 비극적 이야기는 노동자가 되기까지 혹은 노동의식을 갖춘 부부관계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증언함으로써 계급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정체성의 복합성을 노출시킨다. 그것은 계급 해방이 곧 여성 해방임을 주장하는 작품의 논리에 포섭되지 못한 잉여의 영역으로 남겨져 여성 모순이 계급 중심의 사회변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임을 보여준다. 서사의 논리에 포섭되지 못한 채 남겨진 여성 이야기는 90년대 이후 새로운 변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핵심어 : 이남희 80년대 소설, 계급 정체성, 민중민족주의, 노동자 여성, 복합적 정체성, 서사의 잉여

1. 시대의 과제와 변혁의 욕망

1986년 여성동아 장편공모에 갑신정변을 소재로 한 『저 석양빛』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남희는 이후 역사와 변혁이라는 80년대 의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창작 활동을 하였다¹⁾. 그녀의 소설은 마르크시즘 역사철

1) 이남희는 86년 등단 이후 90년대 초까지 장편 『저 석양빛』(동아일보사, 1987),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풀빛, 1991) 과 단편집으로 『지붕과 하늘』(1989), 『개들의 시절』(1991, 실천문학사)를 출간하였다. 10년 단위의 연대기로 나눌 경우 80년대 작품은 『지붕과 하늘』과 『저 석양빛』이지만 단편집 수록 작품들의 실제 창작연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 글에서는 『지붕과 하늘』과 『개들의 시절』에 수록된 단편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학을 기반으로 현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며 새로운 주체를 통한 변혁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80년대 이남희 소설에서 역사는 대립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쟁투가 일어나는 현장이며 인물이나 현실의 모순은 이러한 역사적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제시된다. 자유주의적이고 막연한 역사의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각에서 역사를 투시하는 것으로 그것은 정신이나 이념보다 물질에 의해 결정되는 냉엄한 삶의 현장이자 복잡한 세력이 얽혀 있는 그물망으로 이해된다. 이남희 소설에서 역사는 투쟁을 통해 모순과 억압을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당위적 과제를 읽고 해결해야 할 문체적 텍스트이며 그러한 점에서 80년대 민중민족주의적 진보진영이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²⁾.

사회주의 역사철학에 기초한 이남희의 80년대 소설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각성과 투쟁을 그리고 있다. 변혁의 주체를 노동자로 설정하여 그들의 각성과 연대, 그리고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자를 사회변혁의 주체로 상정하여 민족과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던 80년대 민중민족주의적 노선과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계급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라는 의식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³⁾. 막

2) 80년대 비판적 사회운동은 노선에 따라 시기별 이론과 주장이 다르고 이에 대한 연구도 시기, 방법은 물론 각 시기의 논쟁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 그러나 80년대가 정통 마르크스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노동자 중심의 사회변혁을 도모하였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동춘,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맑스주의이론의 성격변화와 한국 사회과학』, 『창작과비평』, 21(4), 1993. 302~328쪽; 조희연, 『변혁기의 한국사회 8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론의 전개』, 『사회비평』 1, 1988, 124~150쪽; 유경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 『레프트대구』 12호, 2017. 137~177쪽.

3) 80년대 노동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학출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의식 각성에 있으며 학습을 통한 계급의식의 각성과 그것을 통한 사회변혁이 학생운동의 목표였다. 이남희 소설에도 학출노동자의 위장취업을 언급하기는 하기는 하지 만 중심 모티브로 다루어지지 않는 않으며 노조를 통한 의식화가 더 주요하게 드러난다. 유경순, 『구술로 다시 쓰는 1980년대 학출 노동운동사』, 『구술사연구』 7(2), 한국구술사학회, 2016, 189~196쪽.

연하거나 무지했던 인물이 학습과 지도를 통해 현실을 자각하고 노동자의식을 확보하는 각성 과정이 초점화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혹은 그것에 실패하는 과정이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성장소설의⁴⁾ 틀을 가지고 있는 작품에서 인식과 각성은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강조된다. 작품에서 제시되는 여성의 억압은 노동의식의 각성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제시되면서 여성 노동자가 계급 정체성을 통해 각성되는 혹은 그것에 미달하여 미숙한 인물로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여성/노동자의 결핍과 모순을 해결하는 길을 노동자가 주체로 서는 과정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노동해방이 곧 여성해방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여성문제보다 노동의식의 우선성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것으로 남성과 달리 중첩된 억압과 차별에 노출되어 온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여성의 삶에 새겨진 지난한 고통과 억압의 역사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작품은 성별화되지 않은 중성적 노동자의 문제로 귀속시키며 노동해방을 통한 길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에 나타난 작품의 의도로만 보면 80년대 진보적 사회운동이 보여주었던 성차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따르고 있다는 혐의에서 벗

4) 노동자의 의식화 과정을 그린 80년대 이남희 소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체험을 통한 의식의 각성을 성숙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부르주와 교양의식과 다른 노동자 계급 정체성을 표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식도 80년대 노동소설의 성격을 성장소설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80년대 노동소설의 성장소설적 특징을 첫째, 계몽적 태도의 인물과 작가가 느껴진다. 둘째, 계급적 위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제로 한다. 셋째, 도덕적 기준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80년대 노동소설이야말로 '한국소설사에서 본격적인 성장소설의 이름에 값하는 바 큰 전형적인 성장소설'이라고 규정한다. 이남희의 소설은 80년대 노동소설의 성장소설적 특징을 보여주지만 작가의 계몽적 목소리가 작품에 바로 노출된다거나 노동자 계급성을 선악을 판별하는 도덕성의 유일한 잣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80년대 노동소설의 일반적 성취보다 높은 소설적 형상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한식, 『80년대 노동소설의 성장소설적 성격』,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어문학회, 2004, 56~61쪽.

어나기 어렵다.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여성문제가 억압받는 민중의 수탈보다 우선순위에 오르기 힘들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고 조직문화 등이 남성적이었던 80년대 진보적 사회운동의 한계를⁵⁾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여류’의 낙인을 떼어내지만, 소수자로서 여성의 언어를 잃어버린, 그럼으로써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어 온 여성의 글쓰기 전통과 결별하는 한계에서⁶⁾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80년대 여성문학의 구도 속에서 볼 때 이남희는 중산층 지식인 여성의 입장을 포괄하는 ‘또 하나의 문화’보다는 창비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이념성에 가깝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여성억압의 근본원인이라고 보며 계급투쟁과 여성 문제를 동일시했던 사회주의적 진보 운동의 노선을 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남희 작품은 그러한 운동의 이론과 노선에 완전히 포섭되지는 않는다. 작품의 논리와 의도는 계급 모순과 여성 모순을 동일시하며 계급 투쟁을 통해 여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논리가 작품의 세부까지 관철되지는 못한다.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는 서사와 다른 여성적 목소리, 남성과 다른 여성 노동자의 복합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목소리를 뚜렷한 울림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통스러운 여성 역사를 이야기 과정에서 80년대 민중민족주의이 주장하는 논리나 문법과 다른, 그것에 포섭되지 않은 영역을 남겨 놓고 있다. 여성 노동자가 되기까지 또 노동자가 된 이후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성의 역사에 작품이 의도했던 주장과 다른 여성문제가 뜻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논리와 의도를 벗어난 성차별적 모순이 가부장제의 억압으로 표현되면서 남성중심 사회의 이기적 폭력성을 고발한다. 노동의식의 각성과 연대로는 해결되지 않은 잉여의 영역이 드러나는 것으로 계급적 정체성에 포섭되지 않는

5)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423쪽.

6)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2017, 10~21쪽.

여성 억압의 억울함과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80년대의 사회주의 문법과 역사철학 이론으로 해명되지 않는 혹은 그 문법에 포섭되지 않는 여성 역사가 작품에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그것은 작품의 의도를 배반하는 불안정한 영역으로 존재하며 ‘여성’이 지워진 사회주의적 시각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남희 소설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본격적인 연구보다 작품집에 대한 해설적 수준의 글이 대부분이다. 김명인은 『개들의 시절』에서 이남희 소설이 디테일의 진실성이나 실존적 인간의 내면풍경을 제시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러나 충실한 디테일을 확고히 꿰어나가는 적극적인 세계인식이 부족하여 전형적 상황이나 인물의 창조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한다⁷⁾. 전형과 총체성에 대한 80년대 비평의 기준으로 이남희 소설을 분석한 것으로 여성인물들이 철저한 비극적 상황에서 계급의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장소설에 머문 것을 결함으로 지적한다. 이외 서술 양식의 관점에서 『허생의 처』를 분석한 논문이 있으며⁸⁾ 90년대 『플라스틱 섹스』, 『사십세』, 『바다로부터의 긴이별』에 대한 해설⁹⁾, 그리고 생태소설이나 도시 소설적 특징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¹⁰⁾ 지금까지의 논의가

7) 김명인, 『인간의 깊고 넓은, 그리고 먼 세계 - 이남희론』, 『개들의 시절』, 실천문학사, 1991, 275~301쪽.

8) 이미란, 『이남희의 『허생의 처』 연구—초점화와 서술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518~538쪽.

9) 권보드래, 『새로운 저항집단과의 만남, 그 이후 이남희 소설집 『플라스틱 섹스』, 『창작과 비평』 26(2), 창작과비평사, 1998, 472~474쪽; 백지연, 『현재를 응시하는 ‘수인(囚人)’의 글쓰기(이남희 소설집 『사십세』, 창작과비평사 1996, 김소진 소설집 『자전거 도둑』, 강 1996, 한창훈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1996, 『창작과 비평』 24(2), 창작과비평사, 1996, 338~347쪽; 손경목, 『열정과 성취(박혜강 장편소설 『검은 노을』, 실천문학사 1991, 이남희 장편소설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 풀빛 1991, 정화진 장편소설 『철강지대』, 풀빛 1991, 『창작과 비평』 19(2), 창작과비평사, 1991, 346~355쪽.

10) 전혜자, 이정숙, 『한국생태소설연구- 이남희의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69~95쪽; 조은주, 『도시공간에서의 삶과 소설의 대응양상: 이남희, 한강, 김영하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98쪽.

개별 작품이나 작품집에 대한 해설에 그치고 있어 이남희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80년대 민중민주주의적 역사의식을 견고히 내세우며 운동의 노선에서 창작활동을 한 이남희 소설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식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작품의 논리에 포섭되지 못한 채 남겨진 규열의 지점을 밝힘으로써 80년대 진보적 여성 작가의 일반적 흐름 속에서 자기 개성을 확보한 이남희 여성의식의 성취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계급의식의 각성과 노동자/여성 주체의 새로움

여성의 주체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들의 의식의 각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의 각성을 탐구하는 이남희 작품은 하층민 여성이 노동자로서의 계급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체화 과정을 통해 제시한다. 피복공장, 신발공장, 그릇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는 ‘미망’의 상태에 있다가 남성 혹은 여성의 지도로 자신이 노동자라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불투명하고 막연한 의식을 소유했던 여성들은 노동자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며 억압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자본의 이해로 얽혀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하고 그물망처럼 엮인 권력관계를 직시하면서 자신이 속한 계급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억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어둠과 불투명함으로 상징되는 무자각한 의식은 빛과 투명함으로 나타나는 각성의 상태로 변화하고 성숙된다.

이를 통해 여성은 ‘비로소’ 감성적 사유, 의존적 수동성, 순수이데올로기에 침윤된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남희의 작품은 계급적 자각에 기초한 노동의식만이 여성을 억압과 고통의 좁고 어

두운 길에서 끌어낼 유일한 해법임을 거듭 힘주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서’, ‘공부’ 등으로 표현된 ‘학습’이 의식화를 매개하는 길로 중요시 된다¹¹⁾. 학습을 통해 역사의 모순을 이해하고 그것을 투쟁과 갈등의 장으로 파악하며 투쟁의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¹²⁾. 자기를 억압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의 주체로 일어나는 것으로 피상적 의식과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분명한 논리와 목소리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80년대 사회변혁을 추동한 저항적 주체의 자질과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마른 것은 싫다>는 여성 노동자 필남과 말득의 이야기로 낭만적 사랑에 빠진 여성의 수동성과 의존성을 비판하며 노조 활동을 통한 주체적 성숙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은 ‘순수한 사랑’의 이상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다 남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미혼모 처지에 놓인 말득의 연애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랑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여성의 종속성을 비판하고 노동 정체성을 갖춘 필남을 대미시킴으로써 여성 주체화의 길을 제시한다. 이름이 말해주듯 말득은 남성중심적 전통사회에서 차별적으로 양육되고 부당하게 욕망이 차단되어 가출을 통해 공장 노동자가 된 소녀이다. 밝고 명랑한 성격과 달리 ‘한 많은’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부모의 차별과 진학의 좌절에 대해 뼈아픈 과거를 자주 토로하는 그녀는 중학교 졸업 후 오빠의 결혼비용을 위해 진학이 좌절되고 가출 후 봉제공장에 취업하

11) 독서와 공부가 중요한 매개로 등장하는데 육체보다 의식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계몽의 이상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계몽소설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2) 80년대 이남희 소설은 직접적인 계급투쟁이나 행동보다 의식의 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치열한 행동이나 격렬한 투쟁이 나타나지 않는데 김명인은 이러한 행위의 치열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인물이 전형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남희 소설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물의 계급적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거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작품이 행위보다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여성의 정체성은 계급 갈등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사랑이데올로기와 결합된 복합적 요인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인, 앞의 글, 299-301쪽.

여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노동자이다. 그녀의 결핍은 일차적으로 ‘공부’로 표상되는 사회적 성취의 길이 좌절된 데서 비롯된다. 사회적 성취에 이르는 핵심적 통로였던 80년대에 고등교육을 통한 지식이 딸들에게는 차별적으로 허용되었던 상황을 비판하는 것으로 오빠와 남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여성 억압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은 이러한 외적 상황보다 여성 억압의 결정적 원인을 낭만적 사랑이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 말득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커서 ‘항상 남자와 문제가 있었’고(61) 그녀에게 사랑은 삶의 전체이고 신앙적인 맹목성을 가진 것이라는 데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녀는 사랑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빠져 있다. 말득은 만나는 남자가 ‘자신의 유일한 남자’이며 그래서 ‘모든 걸 몽땅 주는’ 것이다. 사랑은 현실적인 이헤나 타산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부르주아적 사랑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작품은 이를 ‘장밋빛 환상’이라고 공격한다. 여성 노동자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숭고성의 관념으로 인해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몰각하게 된다는 것으로 작품은 현실성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체의 것을 ‘허위적’이라고 부정한다. 현실을 채우는 ‘진짜’ 맥락인 계급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관념이라는 것으로 낭만적 사랑이데올로기를 노동자 계급 정체성을 가로막는 여성 차별의 가장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 남자가 왜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말득이는 별로 자신 없는 표정이었다.

“꼭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바로, 그런 걸 묻은 게 아냐 왜냐구?”

“사람 좋아하는 데 이유가 꼭 필요해?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는 거야”

“연애는 안 그래, 연애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면, 동등한 사람끼리 주고 받는 것이라면 특히 더 그런 걸 따져봐야 하는 거다. 사람 사는 덴 다 얽힘이

있고 연애도 그런 율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너 저번에 모임에서 토론할 때 나온 말 생각나니? 물질적인 토대가 정신적인 것까지도 좌우한다는 거.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좀 진중하게 생각해서 처신을 했으면 좋겠어.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가졌다면 그걸 제대로 이끄는 것은 여자한테도 책임이 있어”¹³⁾

여공과 위장 취업한 남자 대학생과의 사랑이 계급적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순수한 사랑은 없으며 물질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허위적이라고 말한다. 계급적 이해가 지워진 감정이나 이념을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여성 억압의 문제가 계급 정체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작품은 사랑에 빠진 말득을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거나 ‘표류하는 배의 목마름 같은 불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랑’을 여성 주체성을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돌로 거듭 공격한다. 모든 가치의 최종 심급을 계급으로 설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여성 억압이 해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부르주와 자본주의의 윤리를 통해 구성되는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를 중심에서부터 거부하고 있다. 낭만적 사랑에 구조화된 부르주와 윤리와 감성을 여성 억압의 관점에서 거부하며 노동자 여성의 계급 정체성을 가로막는 허위적 감성으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다. 기든슨은 낭만적 사랑이 이성애적 사랑과 일부 일체제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를 기초로 한 사랑의 형태로 모성과 가족이 강하게 결합되어 부르주아 윤리의 여성 억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낭만적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란 일단 발견되기만 하면 영원하다는 관념’이 지배함으로써 사회적 맥락을 지우게 되는데 작가는 낭만적 사랑에 개입된 이러한 성차별적 요인을 직시하고 그것에 결합된 의존적 여성상을 비판하는 것이다.¹⁴⁾ 『지붕과 하늘』에서도 노동운동으로 퇴

13) 이남희, 『목마른 것은 싫다』, 『개들의 시절』, 실천문화사, 1991, 72쪽.

14) 앤소니 기든슨, 배은경 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81~98쪽.

학당한 대학생 경호는 운동권 그룹에서 만났던 서영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시위하는 선배 부인에게서 배우자를 발견한다. 중산층 출신으로 은행 취업하여 외모를 치장하는 서영과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¹⁵⁾ 부르주와 사랑이테올로기에 결합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자 여성의 주체성 이 계급 정체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득과 대비되는 필남은 노동자 정체성을 확고히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로 그녀는 노조활동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필남은 ‘인간이 산다는 건 싸우는 것’이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 싸워가는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현실을 투쟁과 갈등으로 그리고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을 곧 ‘자신을 지키고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투쟁을 통한 현실적 영토 확장이 곧 삶이자 성숙이라는 믿음을 내면화하고 있다. 수동적이거나 감상적인 여성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80년대의 성별화된 여성 교양과 교육도 부정한다. 그녀는 말득이 읽는 ‘사랑을 위한 팽세’, ‘바보 같은 연인’ 등의 수필집을 ‘속 빈 강정같은 화려한 말로 사랑을 예찬’한 것이라고 일갈한다. ‘독서’와 ‘교양’으로 표방된 여성 교육의 억압성을 바로 지적한 것으로 여성 교육이 관념적인 교양과 에티켓 수준의 문화지식 생산에 맞추어져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80년대 여성 교육이 적극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며 외견상 남성과 동등한 이념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한국여성의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성실, 정결, 겸손, 덕성, 경로효친 등의 덕목을 강조하고 현모양처나 부덕을 강화하여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소위 ‘여성화’를 위한 교육이었음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것이다.¹⁶⁾

15) ‘중산층 출신의 데모하는 딸’인 여대생 서영은 ‘구불구불하게 손질한 과마머리’, ‘눈가에 칠한 푸른색’, ‘빨간 입술’, ‘화려한 갈색코트에 체크무늬 머플러’로 시각화되는데 여성의 치장과 아름다움을 ‘의식’과 대비하여 저급한 것으로 무시한다. 80년대 이남희 소설에서 학출노동자에 대해 시각은 호의적이지 않는데 계급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산층인 대학생들의 변심과 배반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16) 김재인 외,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여성연구』 제60호, 한국여성정책연

보수적 교육담론이 설정한 여성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필남은 여기서 나아가 이성애적 사랑 자체를 회의하기도 한다. 부모의 차별적 양육에 의해 남성중심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성장한 남성이 여성과 평등한 관계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성애적 사랑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인을 공격한다. 여성 억압의 근본적 원인을 낭만적 사랑과 그것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 제도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를 극복할 해결의 출구를 사회주의적 변혁에서 찾는다. 노동자 주체에 의한 변혁만이 여성의 억압과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녀는 계급 정체성을 통해 역사를 변혁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순과 싸울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남의 형상은 자신의 문제를 현실적 맥락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억압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새롭게 부상한 노동자 여성의 주체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변혁을 위해 시위 현장과 운동의 중심에서 80년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로 역할을 했던 저항적 여성운동의 이념이 필남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역산』 역시 계급 정체성을 통해 주체적 인간으로 성숙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두 번의 결혼과 강제 이혼을 당한 수임은 초로의 나이에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자각을 하게 된다. 오빠의 월북으로 ‘빨갱이년’이라는 수모와 소박을 당했던 그녀는 무허가 관자촌에 들이닥친 포크레인을 보며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의사와의 첫 번째 결혼과 시어머니의 야멸찬 내침, 두 번째 남편의 배반과 학대에도 자신을 억압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던 수임은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자신의 집을 무너뜨리는 폭력적 장면을 목격하고서 비로소

자신을 억압하는 자본의 횡포와 착취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막연하고 억울한 감정이 분명한 인식과 자각으로 바뀌면서 자기의 삶과 문제를 직시하게 되는 것으로 어둠과 막연함은 빛과 분명함으로 바뀌며 독립적 인식의 성숙을 표현한다. 극한적 상황이 그녀를 과거의 부잣집 딸이 아닌 철거민으로 전락한 현재의 자기를 자각하게 한 것으로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다시 태어나게 된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극복해야 할 모순과 대상을 인지하고 대결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좁고 어두운 길의 끝』도 역시 노동자 경순의 자각과 독립적 주체로서의 정립을 보여준다. 경순은 오빠의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으며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암울하고 막연한 우울 속에서 소비시켜왔지만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것으로 믿었던 오빠에게 실망하면서 동료 여공과의 연대가 자신이 서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된다. 계급의식과 투쟁만이 자신의 억울함과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통로임을 알게 되는 것으로 노동자 정체성을 통한 여성 억압의 해법을 거듭 제시하고 있다. 계급적 이해에 기초한 연대와 투쟁만이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 여성은 억압적 여성성의 자질들 곧 의존적 수동성, 감상성에서 벗어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 모순의 내용과 극복 방향에 대한 시각을 확보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의지를 표명한다. 여성을 피해 받는(받는 것이 당연한) 소극적 대상이 아닌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노동자 여성의 각성은 80년대 사회변혁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노동자 여성의 주체적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정체성에 초점을 둔 작품의 서사에서 여성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자 여성의 정체성은 계급이라는 단일 요소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복합적인 것이지만 작품에서는 노동자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복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은 계급 모순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간과되거나 차순위로 밀려 있는 것으로¹⁷⁾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부장제와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발견되는 성차별이 계급 논리 속에서 제대로 포섭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러한 여성의 고통은 서사의 논리 밖에서 의도치 않게 나타나는데 하층민 가정에서 태어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고 당하는 가부장적 억압과, 의식의 각성 이후에도 불편하게 남아 있는 지도자 남편과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의 생애를 압축시켜 재구성하는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다. 서사의 중심 논리나 의도가 아닌, 중심에 통합되지 않는 삽화를 통해 제시된 여성의 이야기가 계급 모순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서사의 논리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3. 비극으로 말하는 여성 역사의 진실, 포섭되지 않은 잉여

이남희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이점 중 하나는 소설의 분량이 길지 않음에도 노동자 여성의 삶이 개인의 역사로 압축되어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이야기는 단편적 사건이나 정황이 아닌, 태어나면서 노동자가 되기까지 혹은 죽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압축적으로 제시된다. 여성노동자의 억압이 일대기적인 여성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이런 여성 이야기는 이남희 특유의 현실감 높은 구체적인 묘사와 작가의 시각에 밀착된 목소리로 전달됨으로써 높은 공감을 얻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모순이 과거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17) 이는 80년대 문학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김양선은 80년대 민족문학 주체 논쟁의 담당자들이 역사 발전의 주체가 ‘민족’이나 ‘계급’이나, 혹은 ‘민중’이나 ‘계급’이나를 해명하는데 주력했지만 이들의 담론구성방식은 남성적이고, 주체 설정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엿보이는 것은 여성적 관점의 부재이었다고 지적한다.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0~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1), 한국근대문학회, 2005, 154-181쪽.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자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가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여성의 비극적 일생과 단절되어 있다. 자본가의 탐욕적 노동착취와 다양한 권력 관계에 대한 고발은 그녀들이 노동자가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즉, 오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부당한 차별과 폭력적 대우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한 이유로 작품이 노동자 여성의 모순에 대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계급적 각성과 투쟁도 여성 차별에 대한 방법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멸과 차별에 노출된 여아, 이들을 낳기 위해 밖으로 떠도는 아버지(남자)와 그것에 주눅들어 버림받거나 고통당하는 아내, 오빠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는 소녀, 가족과 생계를 방기한 노조 지도자 남편 뒤에서 소외된 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아내, 생각과 취향이 맞지 않는다며 위장취업한 대학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여자 노동자, 남자-종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부모의 재산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딸, 밥그릇도 없이 굶주림과 노역에 시달리는 며느리의 문제가 이러한 여성 역사에 알알이 아프게 새겨져 있다. 이러한 모순은 현실감 높은 구체적인 묘사와 서술자의 공감어린 시각을 통해 제시되지만 작품이 말하려고 하는 현실의 모순과 해결책에 논리적으로 통합되지 못한다. 서사의 방향과 작품의 논리는 여성 억압이 계급 모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여성 문제가 계급 문제 해결에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여성 억압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관성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이런 여성 이야기는 ‘노동자로서의 각성과 노조활동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되묻고 있다. 작품의 논리적 귀결은 계급적 각성과 성취 혹은 각성의 미달로 인한 비극을 보여주지만 계급 정체성에 어떻게 여성의 비극이 통합될 수 있는지는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 여성의 비극적 이야기는 계급 모순과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성 억압의 진실을 ‘의도치 않게’ 보여줌으로써 작품이 기초한 신념과 문법에 포섭되지 않는 잉여의 영역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계급해방이 곧 여성 해방이라는 작품의 전제와 믿음에 심

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목마른 것은 싫다』에서 말득과 필남은 어린 시절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그로 인한 교육 기회의 박탈을 경험한다. 부모는 아들들만 애지중지하며 납부금과 음식, 옷 낚는 곳까지 차별하며 키웠고, 중학교 졸업 후 오빠와 남동생의 진학과 학자금 마련을 위해 공장에 들어가야 했다. 이런 부모의 일방적인 편애와 차별로 남동생들은 ‘여자란 아무리 잘났어도 남자보다 못한 것이라며 남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를 이어줄 아들에 비해 ‘쓸데없는’ 존재로 출생부터 냉대받은 딸의 억압이 서사를 통해 아프게 전달된다. 여공으로 편입되기까지 이들 소녀가 겪는 부모의 차별적 양육과 가사노동,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의 진학을 위한 희생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에서¹⁸⁾ 보편적 공감을 획득한다. 특히 학업에 대한 욕구가 컸던 말득은 고등학교 진학을 간절히 원했지만 입학식 당일 오빠의 결혼비용 때문에 부모가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출을 결행하여 봉제공장에 취업한다. 이후 육체적 고단함과 임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노동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녀에게 공부는 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간절한 소망이지만 ‘여자가 더 배워 무엇 하느냐’는 아버지의 한 마디에 묵살되고 좌절된다. 채워지지 못한 애정의 갈망은 이후 그녀가 계속 ‘남자와의 연애로 문제를 일으키는’ 즉, 남자와의 연애에 매달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가부장적 억압이 여성의 삶 전체에 결핍의 상처로 작용하게 됨을 보여준다. 여아 차별은 아들에게도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여 평등한 연애를 가로막음으로써 결국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는 결정적 모순이 될 수 있음을 작품은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는 이들 노동자 여성에게 계급 정체성의 확보와 투쟁만을 억압을 해결하는 길로 제시하고 있어 원인과 해결 방법이 이반되는 모순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문화와 윤리에 연결된 여아

18) 유경순 외,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 구로동맹파업의 주역들, 삶을 말하다』, 서울: 메이데이, 2007, 10~380쪽.

차별을 계급투쟁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차별이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성 모순이 모두 해명되지 않는다. 말득이 별명인 ‘한 많은’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여성의 비극적 역사는 과거의 전통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 미래를 향한 변혁만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을 ‘계급’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여성 이야기는 통합되지 못한 이질적 서사로 작품에 남겨지게 된다. 작품의 논리와 의도 밖에서 계급투쟁이 곧 여성해방이라는 작품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의와 의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밥그릇』은 이남희 80년대 소설 중 여성 노동자의 비극적 역사가 가장 강렬하게 제시된 작품이다. 작품은 이름도 갖지 못한 채 ‘그 여자’로 호명되며 노동과 굶주림으로 점철된 여자의 비극적 일생을 ‘밥그릇’이라는 상징을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딸로 태어난 그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빈 항아리에 뚜껑 덮어 던져졌으나 모질게 살아 ‘쓸데없는 밥벌레인 딸만 낳았다고’ 불평하는 아버지의 불평 속에서 구박당으로 자란다. 전통사회에서 성 불평등이 여아 살해 모티브를 통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밥그릇도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다운 존엄성과 생존을 박탈당한 억압적 현실이 심각하게 제시된다. 여자의 결핍은 배고픔으로 적실하게 드러나지만 그것은 경제적 궁핍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 아들과 달리 딸과 며느리에게 가하는 부당한 차별이 결정적 요인임을 작품은 보여준다. 아들을 얻을 궁리로 밖으로 돌았던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온 새어머니가 주는 ‘쌀은 언제나 밥 한 그릇이 부족한 양’이었고 입을 줄일 궁리로 모진 매를 맞아가며 강제로 걸어서 간 시집은 형편이 나았지만 혹독한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여자는 밭일과 가사일, 시동생 돌보는 일로 ‘눈이 노래질 정도로 일에 시달리지만’ 시어머니가 퍼주는 쌀로는 자기 몫의 밥을 먹지 못하여 허기진 배를 늘 끌어안고 살아야 했고 그나마도 살림을 아무지게 하지 못한다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며느리에 대한 노동 착취와 ‘시댁’과 ‘며느리’의 부당한 위계적 관계가 잔혹사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 작품

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결핍이 정신이나 의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육체를 통과하는 현실적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이해와 배려도 허용치 않는 극한적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오직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로만 인정될 뿐이었던 것으로 너무 배가 고파 친정으로 도망간 그 여자는 아버지의 작대기 매질에 온몸이 명자국으로 망가져 되돌아오고 그런 여자에게 시아버지가 보인 분노의 반응은 - ‘아프면 약값은 누가 쓸기라고 사람을 이지경으로 때리냐’ 참상에 가까운 여성 억압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이러한 그 여자의 비극적 역사는 여성 문제가 일차적으로 가부장제도의 인습과 윤리와 깊게 결부돼 있으며 그것은 계급 모순과 다른 차원의 억압과 결부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도시로 이주한 후 제시되는 후반부에서 작품은 그 여자의 문제를 계급 정체성이라는 단일 모순으로 통합하고 있다. ‘여성’ 문제를 ‘계급’ 문제로 통합하고 문제의 해결을 그것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작품의 후반부는 남편의 각성과 지도적 면모가 부각되고 그것에 따라 가지 못한 여자의 비극적 죽음이 제시된다. 남편을 따라 도시로 올라온 여자는 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지만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기 어려워 자기 밥그릇을 채울 수 없었고 굶주림은 도를 더할 뿐 나아지지 않는다. 반면 술과 주정으로 살아가던 남편은 자신의 주정을 피해 부뚜막에서 자던 아이들이 연탄가스으로 죽을 뻔한 사건을 계기로 술 대신 책을 읽는 ‘똑똑한’ 사람으로 변화한다. 시를 쓰고 노조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조리있게 설명도 잘하는 지도자가 된 것으로 노동의식을 갖춘 지도자로 성숙한다. 막연한 울분과 분노로 괴로워하던 남편은 노조활동을 통해 자기 논리와 목소리를 갖춘 자각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계급 정체성을 통해 모순을 해결하려는 작품의 의도는 남편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남편의 자각과 달리 그 여자는 계급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미숙함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다. 성숙과 투쟁이라는 작품의 당위적 의도에 미달한 여성을 죽음이라는 부정적 보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그 여자는 변화된 남편이 ‘무섭고, 낯설고, 두렵기까지’ 한 것으로 남편이 말하는 노동, 자본, 의식이라는 단어가 생경하기만 하다고 말한다. 작품은 그 여자의 죽음이 제대로 학습을 받지 않아 의식화되지 못한, 즉 지적 능력 부족과 현실에 대한 집착에서 초래된 결과임을 말하고 있다. 그 여자는 두 명의 딸을 낳은 이후 세 번째로 아들을 낳자 ‘이들만은 허술하게 키울 수 없다’며 ‘맹렬히 부업거리에 매달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데 이는 남편의 ‘의식’과 대비된 ‘현실적 욕망’으로 그 여자의 죽음이 자각과 성숙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의 실패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상황은 의식의 미숙함으로만 비판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여자는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남편의 강연에 참석해 졸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으로 여자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그 여자가 계급 정체성을 투철하게 갖지 못한 데는 남편의 무책임과 자기중심적 태도에 의한 여성 억압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여자는 노조일과 수배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대신 세 명의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도맡아야 했고 그래서 임금이 높은 고된 공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다 결국 과로로 죽는 것으로 이러한 죽음을 단순히 현실적 욕망과 계급 정체성의 미숙함으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이라고 제시하는 작품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식화된 지도자 남편의 무책임한 가족 방기와 자기중심적 태도가 낳은 ‘여성’의 비극이기도 하다. 여자는 머리도 들 수 없이 피로한 몸을 이끌고 남편의 강연에 참석해 ‘비로소 머릿 속에 환하게 불켜진 것 같’은 노동의식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소외감과 반발로 부대’긴다. 분명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가 활동하는 남편과 그로 인해 자신이 일방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노동의 무게가 남편의 지도를 전적으로 호응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의식만으로 남편의 무책임한 방기와 아내 무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지도자인 남편은 ‘정작 그 여자의

밥그릇이 늘 반나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무관심하였으며 남편의 활동은 옆집 사람이나 다른 노동자들을 통해 들어야 할 정도로 아내를 정당한 동반자로 존중받지 못했던 것으로 그 여자의 죽음은 계급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노동자의 복합적 정체성과 결합된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은 그 여자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계급 정체성이라는 단일한 해결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여자의 비극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미결의 문제로 남겨진다. 작품은 결국 여자의 죽음을 계급적 자각에 이르지 못한 '의식 미달'에 초점을 맞춰 처리함으로써 계급 모순과 다른 여성 모순의 복합성을 제대로 탐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계급 문제에 비해 부차적이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난제로 나타나고 노동자 여성을 죽음으로 이끈 결정적 원인은 노동 착취와 그것에 충분히 의식화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작품이 제공하는 모순의 해결방식은 계급 정체성의 확보에 모아진다. 여성의 문제는 중심 논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존재감 없는 부차적 삽화 정도로, 작품의 의도에 포섭되지 않은 없어도 좋은 불편한 잉여로 남겨진다.

『허생의 처』에서는 『밥그릇』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게 초점화되며 현실과 밀착된 여성의 목소리와 입장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계급 갈등이 약한 과거의 시공간을 택해 여성 문제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노출시킨 작품으로 여성 문제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허생전』을 패러디한 이 작품은 허생전에서 존재감이 미약했던 허생원의 아내를 희생자로 부각시켜¹⁹⁾ 부인의 시각에서 남편의 무책임함과 이기적 오만함을 비판하고 있다. 독서에 매진하는 남편으로 인해 아이도 갖지 못하고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온 허생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허생의 처』는 액자형태의 소설로 윤영이라는 사람이 허생전을 쓰려던 '나'에게 허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허생의 아내 말씀이오, 참 가엾더군요, 그러고도 그 여잔 여전히 굶주렸던 거요'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도사인 윤영의 말은 작품의 주제를 암시한다.

남편을 뛰어난 인재라고 존경했으나 변부자에게 돈을 빌어 큰 이윤을 남겼다는 사실을 돈을 꾸러간 인척에게 듣고, 또 조정애에 나가기 싫어 집을 팔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도 사촌에게 듣게 되면서 남편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이기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그녀는 혼인으로 인한 신의를 왜 여자만 지켜야 하느냐며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아내의 희생과 노동을 당연한 내조로 여기는 유교 윤리에 분명히 항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뛰어난 재주와 높은 학덕을 갖춘 학자로서의 허생 위상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아내의 태도로는 매우 과감한 대응인 것으로 이러한 허생원 처의 솔직함과 대담함은 자본주의와 계급 모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부장제의 모순에 집중함으로써 노동자보다 여성의 모순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작품에서 남편은 학문적 우월성을 통한 정신적 고매함으로 아내를 주눅 들게 만들었던 존경의 대상에서 혹은 받아들여야 할 ‘하늘’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인간으로 비하된다. 남편의 ‘정신’은 부인의 현실적 노동에 비해 결코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부인을 무시하는 남편의 근거였던 현실에 초연한 이념적 지향도 작품에서는 별반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남편과 남편을 구성하는 자질들은 존경받고 추앙받아야 할 것이라기보다 부인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비현실적 망상이거나 허망한 의식 정도로 조롱의 대상이 된다. 현실 속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여성의 실천적 행동이 오히려 가치 있는 것으로 부각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볼 때 작가가 여성 문제 자체에 무관심했다기보다 계급 모순과 여성 모순 사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대 진보적 운동진영의 이론으로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계급과 민족, 그리고 사회변혁에 대한 논의와 열망이 강했던 80년대 상황에서 여성 문제를 계급보다 차선의 과제로 남겨둔 것으로 여성 모순은 새로운 시대에 해결해야 할 변혁의 과제로 남겨진다.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작품에서 허생원의 아내는 남편의 비현실적인 태도를 공격하면서 이념에 묶이지 않은 유연한 현실이해를 보여준다. 아내는 허생이 변부자에게 돈을 빌어 큰 돈을 남겼으면서도 그것을 아내에게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독서와 학문의 목적이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보다 높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하며 ‘행복하게 살며 변성하라’는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독서와 학문의 길임을 주장한다. 공명심, 현실과 분리된 이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현실에서 실천되는 지식, 학문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작가가 강조하는 현실의 내용과 변혁의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거니와 생활과 물질로 구성된 일상과 그 일상의 문제를 변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특정 이념에 고정되어 있기보다 시간의 흐름 곧 현실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변혁의 내용과 방법도 변화 가능하다. 이남희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 자체라기보다 물질적 일상으로 구성된 ‘현실’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억압하는 모순임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변혁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내용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새로운 변혁을 위하여

이남희 소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성된 시간의 변천 속에서 모순을 파악하며 현실의 맥락 속에서 그것의 얽힘과 극복을 탐색한다. 현실에 실천되지 않는 이념과 정신을 ‘이상’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하지 않으며 삶이 영위되는 현장에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을 의미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현실은 항상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밀착되어 있는데

작품에서 남성이 의식과 학습,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더 많이 할당되어 있다면 여성은 생활의 공간인 현실에 더 가까이 긴박되어 생계를 해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²⁰). 노동의 공간이자 일상의 생활이 영위되는 곳으로 현실을 벗어나 혹은 탈주한 감성은 환상으로 부정한다. 치열한 생존의 현장인 것으로 이러한 치열함을 부정하는 것은 냉철하지 못한 나약함으로 거부한다. 작가에게 현실인식이란 물질로 구성된 생활의 공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작품은 그 속의 억압과 모순을 극복하려는 변혁의 열망을 지속적으로 투사한다.

이러한 역사와 변혁의 이야기에서 작가가 80년대 변혁을 위한 동력으로 주목한 것은 계급이다. 노동자가 계급 정체성을 확보하여 자신을 억압하는 세력과 투쟁해야 함을 강조한다. 노동자를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고 연대와 조직을 통해 자본의 폭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80년대 이남희 소설은 직접적인 투쟁이나 행동보다 의식의 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을 억압하는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한 우울과 고민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이 학습을 통해 노동자 정체성을 갖고 현실과 모순을 인식하는 과정을 성숙으로 제시한다. 성장소설의 서사를 통해 노동자 인물이 역사를 변혁하는 주체로 세워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남희 소설의 주장은 역사의 주체로 노동자를 상정하고 계급 모순의 해결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던 민중민주주의의 이론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을 기초로 노동자 중심의 변혁을 지향한 시각을 견지했던 것으로 그런 만큼 이남희 소설의 여성의식은 민중민주주의 노선이 견지했던 여성 문제에 대한 시각을 따르고 있고 그것의 성취와 한계도 공유하고 있다. 계급 정체성을 자각한 여성 노

20) 이러한 점에서 이남희 80년대 소설은 기본적으로 차별적인 성역할 구분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 여성의 계급 정체성을 통해 여성 주체성을 추구하면서도 성역할 구분은 이전 시대의 인식을 수용하는 것으로 여성의식 안에서 이질적 낙차를 보여준다.

동자들이 패배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억압했던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과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거나 노동자 연대를 통해 조직적 행동에 나서으로써 새로운 저항적 주체로 서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 여성의 복합적 정체성이 고려되지 않고 여성 모순을 중성적인 계급 문제로 봉합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계급 문제의 해결이 곧 여성 모순의 해결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성 모순을 부차화하는 것이다. 작품의 논리는 여성의 문제를 계급 정체성으로 환원시켜 계급 해방이 곧 여성 해방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계급 모순과 다른 차원의 복합성과 이질성을 갖는 여성 모순을 서사의 논리에 충분히 통합하지 못한다.

그러나 작품의 논리에 통합되지 못한 여성 문제는 노동자 여성의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재구성되면서 계급투쟁을 유일한 혹은 우선적 문제로 설정하는 작품의 논리에 균열을 일으킨다. 여성이 노동자로 편입되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담한 고통과 곁핍이 제시되면서 계급 모순으로 환원되지 않은 여성의 억압이 의도치 않게 드러난다. 비극적 이야기는 노동자가 되기까지 혹은 노동의식을 갖춘 진보적 남편과의 부부관계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고통이 지속됨을 증언함으로써 계급 정체성과 다른 복합적 여성 정체성의 문제를 노출시킨다. 계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가부장적인 제도와 깊이 연결돼 있는 성차별이 모두 해결될 수 없음을 이들 비극적 서사가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이야기는 계급 해방이 곧 여성 해방이라고 주장하는 작품의 이념적 기초나 논리에 포섭되지 않음으로써 서사의 중심에서 이탈된 잉여로 남겨지지만 계급의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 여성 모순이 있음을 불편하게 인식시킨다. 계급 중심의 사회변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인 것으로 서사의 잉여로 남겨진 여성 이야기는 여성 억압을 위한 새로운 변혁이 필요함을 스스로 웅변하고 있다.

이남희 소설은 민중민족주의를 표방한 진보적 여성운동의 노선을 이념적으로 공유하면서도 이념에 현실을 일방적으로 복속시키지 않음으로써 계급 운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억압의 현실을 노출시킨다. 역사와 변

혁이라는 거대서사 앞에서 당위적으로 노동자 전형을 일시분란하게 추구하기보다 노동자로 환원되지 여성의 억압을 강제로 봉합하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민족민주주의적 논리에 잉여와 균열의 흔적을 남긴다. 의식으로 무장된 진보적 남성에게도 성차별적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이 있음을 통찰하고 자본주의 윤리와 결합된 낭만적 사랑이 여성 억압의 중요한 요인임을 예리하게 통찰한 작가의 시선은 80년대 진보진영의 여성작가군 안에서 이남희 소설이 거둔 고유한 성취라 할 수 있다. 계급이라는 단일 모순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이고 분열적인 정체성을 갖는 여성 노동자로서의 모순이 작품의 논리에 균열을 일으킨 것으로 여성 시선이 의도적으로 억압되고 약화되었던 80년대 진보적 여성 작가들의 창작활동 속에서 이러한 균열과 잉여는 여성 모순을 환기하는 중요한 성과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은 계급으로 해결되지 않은 여성 모순을 입증함으로써 새로운 변혁을 위한 동력을 제공한다. 논리의 외연에서 충분히 추구되지 못한 채 어색하게 남겨졌던 여성 문제는 이후 이남희 소설에서 변화된 현실에서 해결해야 할 변혁의 주요한 과제로 추구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남희, 『지붕과 하늘』, 문예출판사, 1989, 1~312쪽.
 _____, 『개들의 시절』, 실천문학사, 1991, 1~302쪽.

2. 단행본

- 박지영 외, 『젠더와 번역』, 소명출판, 2013, 391쪽.
 유경순 외,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 : 구로동맹파업의 주역들, 삶을 말하다』,
 서울: 메이데이, 2007, 10~380쪽.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한국변혁운동의 역사와 80년대의 전개과정』,

한울, 1995, 225쪽.

앤소니 기든슨, 배은경 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81~98쪽.

우에노 치즈코·조한혜정, 사사키 노리코·김찬호 역,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 나무, 2004, 70쪽.

재크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167쪽.

3. 논문

권보드래, 「새로운 저항집단과의 만남, 그 이후 이남희 소설집 『플라스틱 섹스』」, 『창작과 비평』 26(2), 창작과비평사, 1998, 472~474쪽.

김동춘,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맑스주의이론의 성격변화와 한국 사회과학」, 『창작과비평』, 21(4) 1993.12, 302~328쪽.

김명인, 「인간의 깊고 넓은, 그리고 먼 세계 - 이남희론」, 『개들의 시절』, 실천문학사, 1991, 275~301쪽.

김양선,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0~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1), 한국근대문학회, 2005, 154~181쪽.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2017, 10~21쪽.

김재인 외, 「한국 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여성연구』 제6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1, 151~253쪽.

김한식, 「80년대 노동소설의 성장소설적 성격」,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어문학회, 2004, 56~61쪽.

백지연, 「현재를 응시하는 ‘수인(囚人)’의 글쓰기(이남희 소설집 『사십세』, 창작과비평사 1996, 김소진 소설집 『자전거 도둑』, 강 1996, 한창훈 소설집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1996, 『창작과 비평』 24(2), 창작과비평사, 1996, 338~347쪽

손경목, 「열정과 성취(박혜강 장편소설 『검은 노을』, 실천문학사 1991, 이남

- 희 장편소설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 풀빛 1991, 정화진 장편소설 『철강지대』, 풀빛 1991, 『창작과 비평』 19(2), 창작과비평사, 1991, 346~355쪽.
- 오자은, 『중산층의 데모하는 딸들-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413~449쪽.
- 유경순, 『구술로 다시 쓰는 1980년대 학출 노동운동사』, 『구술사연구』 7(2), 한국구술사학회, 2016, 189~196쪽.
- 유경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 『레프트대구』 12호, 2017. 173~177쪽.
- 이미란, 『이남희의 『허생의 처』 연구—초점화와 서술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8. 518~538쪽.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6, 423쪽.
- 전혜자, 이정숙, 『한국생태소설연구- 이남희의 『바다로부터의 긴 이별』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3, 69~95쪽.
- 조은주, 『도시공간에서의 삶과 소설의 대응양상: 이남희, 한강, 김영하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98쪽.
- 조희연, 『변혁기의 한국사회 80년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론의 전개』(『사회비평』 1, 1988, 11, 124~150쪽.
- 허윤, 『1980년대 여성해방운동과 번역의 역설』, 『여성문학연구』 28, 2012, 239~264쪽.

Abstract

The Contradictory Coexistence of Women's History and 80's Grammatical Reading of History: Consciousness on women in Lee Nam-hee 80's novel

Song, In-hwa

This article explores women's consciousness in the works of Lee Nam - Hee novels in the 1980s. Lee Nam-hee, who began writing a novel through a historical novel, "The Sunlight," which deals with the 'gabsinjungbyun' in 1985, pursued the 80s agenda of history and transformation in a popular-nationalist perspective. It sets the working class as the subject of history and pursues soci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resolution of class contradictions. The story of a working woman who has secured a class identity through a narrative of personal growth novel is explored by showing her will to fight against it her awareness of the reality of violent oppression is demonstrated through the character's solidarity and struggles. In this process, women workers who are aware of their class identity become a resistance subject with their voice and their willingness to move away from a defeated and passive female consciousness.

However, it does not consider the complex identity of the working woman and it shows the limitations of closing female contradictions to neutralize class problems. It fails to properly integrate female contradictions which has deferent complexities and heterogeneities from class contradictions into narrative logic by

claiming class liberation as equivalent to female liberation; that is reduces the problems of women to the issue of class identity.

However, a gap is created in the logic of works that set class struggles as the sole or priority problem: this gap is created through the tragic histories of women workers, as the problems of these women are not integrated into the overall intention of the works. In the course of telling stories about women before they become workers the suppression of these women whose suffering and deprivation has not been reduced to the contradictions of the class, unintentionally manifests. The tragic story exposes the complexity of the female identity, different from class identity by testifying that the tragedies of working women continue to exist in labor – conscious marital relations. As a result, the tragic history of women 's history are left as a surplus not to be subordinated to the logic of the claim that class emancipation is female emancipation. It is a difficulty that cannot be solved by class-centered social transformation. The stories of women which are left as a surplus in narratives reveal the contradictions that could not be solved by the progressive social movements and theories of the 1980s, and provides the power for new transformations since the 1990s.

Key words : Lee Nam-hee's novels of the 1980s, Class identity, Popular-nationalism, Worker women, Complex identity, Surplus of narrative

■ 본 논문은 2018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